

“형아! 오늘 철새보고 선운사도 간다”

장애아들 세상나들이 하는 날

영산강변 철새 비상모습에 눈망을 고쳐

“비도오고 바빴지만 우주여행 다녀온 기분”

“형아, 형아~” 우리 오늘 철새보로 간다. 선생님! 그랬어. 영화도 보고 선운사도 가고 그런다고...” 12일 아침,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가 성제재활학교를 가득 채웠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소장 종실)와 대전·충남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아들의 사회 적응력과 재활의지를 높여주기 위해 마련한 ‘장애인 세상 나들이’ 아이들의 재잘거림에 대전대학교와 한빛고등학교에서 나온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기에 바빴다.

“우리 친구들은 몸이 조금 불편할 뿐입

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세요.”

80여명의 참가자들은 종실스님의 당부의 가슴에 세기며 첫 행선지를 향해 출발했다. 3시간여 만에 도착한 영산강 하구.

“철새가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 연구실 백운기 박사의 외침에 아이들은 힘껏 소리치며 언덕 위로 올라왔다. 자신들의 등치만한 활채어를 힘있게 이끌고.

“와~ 새가 일렬로 쭉 있어있다.” 처음 보는 광경이 신기하기만 한 김민봉(성제재활학교 1학년) 학생은 옆에 앉아있는 강동휘

(성제재활학교 1학년)학생을 콧속 찌른다. “정말이네. 나 이거 텔레비전에서는 봤는데 실제로는 처음 본다. 나도 날고 싶어.” 점점 거세지는 비바람에 철새의 비상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아이들은 한참동안 손에서 망원경을 놓지 못했다. ‘언젠가는 날겠지.’ 하는 간절한 소망이 눈을 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겨울철새 탐사뿐 아니라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견학, 영화관람, 고창 선운사 탐방 등 1박 2일간의 빼듯한 일정을 모두 마친 아이들은 전보다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었다.

“우주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에요.(웃음) 어제 배 있었잖아요. 저 그 배를 모는 선장이 되고 싶어.” 정여울(성제재활학교 1학년) “저는 멋진 영화배우가 될래요.” 이수경(성제재활학교 3학년) 머리 속 상상의 세계가 아닌 직접 눈으로 보고 접한 세상. 아이들은 그 모습을 꿈으로



◇영산강 하구에서 겨울 철새를 바라보고 있는 장애아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아이들은 ‘희망’을 얘기하며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미래로 되새기며 나들이를 마무리했다.

“몸이 불편하고 말투가 어눌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장애아들을 과소평가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교의 세계가 넓고 깊은데도 말이죠.” 김미진(대전대 02학번) “계속 듣고 싶어요. 활채어를 들고 아이들을 안고, 제 몸은 지금 이 순간만 힘들지만 아이들은 평생 이보다 더 힘들어할

테니까요.” 이은희(한빛고 3학번)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날아올라 자유의 숨을 내쉬고픈 아이들. ‘장애인’이라는 새장 안에 갇혀 밤 한발자국 내딛기조차 힘들었던 아이들의 작은 외침이 봉사자들의 가슴뿐 아니라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리 함께 살아요.”

목포=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자비의 헌혈증서 모으기

생명나눔본부, 동국대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범장)는 11월 12일 동국대학교에서 ‘자비의 헌혈증 모으기’ 행사를 열었다. 동국대 100주년 D-900 기념 행사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교수, 교직원, 재학생 등 2백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모인 헌혈증은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 생명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02)734-8050 이동혁 기자

붓다클럽 창립다짐대회

시도별로 조직, 활동확대

불교를 생활화하기 위한 재가불자들의 모임 붓다클럽(총재 안동임)이 11월 13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창립다짐대회를 갖고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붓다클럽은 △매일 부처님 전에 108배 △매일 찬불 이상 염불(참선) △매일 이웃에게 포교 △매일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 △매일 일정액 보시 등 ‘5대 실천덕목’을 공표하고 개인별 수행기록지를 지급했다.

붓다클럽은 향후 시도별 지역조직을 구성해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붓다클럽이 창립다짐대회에서 불교생활화를 위한 ‘5대 실천덕목’을 공표하고 실질적 활동에 들어갔다.



◇화성 신항사에서 열린 제2차 불교환경 워크숍 모습.

‘불교환경의제 21’ 수립 추진

한국불교정통성의 재발견 사업

이병인 교수 주장

“불교환경의제21을 수립해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은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 시대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병인 교수(국립밀양대 환경공학과)는 11월 14~15 화성 신항사에서 열린 2차 불교환경 워크숍에서 ‘불교환경의제21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불교환경의제21의 수립은 내부적으로는 이 시대의 복합유산은 불교

의 자산을 지켜가는 길이며, 또한 1700여년간 유지해 온 불교계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포교로서의 시대적 구현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 동안 추진되어온 불교환경의제21의 문제점과 과제를 평가하며 본발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포교와 교육사업의 연대 및 문화와 사회복지사업의 연계 등을 통한 실행력과 자생력 육성 등을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청담복지관 자비관 준공

노인보호센터 등 갖춰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이) 11월 13일 ‘자비관’ 신축 준공식을 갖고 지역사회 복지사업 증진에 나섰다. 준공식은 청담 스님과 혜명복지원 설립자 김기용 보살의 흉상 제막식이 함께 거행됐다.

관장 혜성 스님은 “부처님 자비의 마음으로 1995년 문을 연 청담복지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온 것이 8년째”라며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인원 정진관 옆에 총 450여 평 규모로 건축된 자비관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치매노년기보호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동혁 기자

원각사 10층석탑·팔각정 경관저해

탑골공원 주변 오피스텔 행정소송

원각사, 종로구청에

서울 원각사(주지 보리)측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10월 27일 탑골공원 주변 오피스텔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허가변경저해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리 스님은 소장에서 “종로구청이 현재 공사 중인 오피스텔의 설계 변경을 2002년 12월 허가해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를 위반한 높이로 공사가 진행됐다”며 “그 결과 국보2호 원각사지10층 석탑과 팔각정의 풍족 경관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7월 15일 정해진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14조의 2 별표 1에 따

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보호구역의 경계치 아닌 사적의 경계(약 7m의 거리 차이가 남)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서울시 문화재 관계자는 “2002년 7월 조례 제정이전에 건축허가난 건물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도 그 이전 법에 따른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참을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목석소리 권형진 (취재1부 기자)



조계종 정기중앙총회가 열린 조계사 문화교육관 앞 11월 11일 시위대(가) 등장했다. ‘조계종립’ 동국대 사회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학생들이 ‘K교수 성추행 사건’의 해결 촉구를 위해 나선 것이다.

K교수는 2000년 여자 제자를 성추행했고, 학교는 해임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1개월 징직’ 명령에 따라 K교수는 복직했다. 학생들은 수업 거부로 맞섰고, K교수의 수업을 듣지 않기 위해 졸업을 늦추는 사회화

과 학생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 그는 다른 과 학생 6명(4명 이상이면 수업 가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분노는 K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고 그 학생을 돕던 동료 교수마저 고소한 ‘반향함’에 모아지는 듯하다. 그리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교수를 해임할 수 없는 현 교육제도에 대한 격분이다.

학교도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당장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역시 마땅치 않아 보인다. 그래도 개운치 않은 뒷맛은 여전하다. 종교계에만 인 서강대가 비슷한 사건을 겪은 이후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스템을 하나씩 마련해 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른 사람의 존엄성에 상충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인왕, 평촌, 군포, 신촌, 성남, 분당, 수지, 구산,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런 나눔 콜택시
1588-5532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금강염주를 받거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 등이 발생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물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 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이 발생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일부여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화귀 금강염주로 이곳은 원로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향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혜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혀로 주수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받아 전신으로 하고 사후환급 가능합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동동 177 대흥 B/D 406호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 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만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달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촌내 스님은 물론 업무 보는 사람들이에게도 필수이다. 워터에서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통한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복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방향을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방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음채 전면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한글 자막을 보여주어 영어의 바른 이해를 돕는다.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부족해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키워부터 티치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중하며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LCD형 영어로봇 '뉴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 9